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8주일

제34권 46호(가해) 2014년 10월12일

[묵상]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잔치에 가야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우리는 고민 한다.
그래서 옷장 속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간다.
하느님 나라의 잔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모든 이를 초대하는 성대하고 즐겁고 기쁜 잔치다.
우리들은 이 초대에 응답했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남은 일은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쫓 수가 없다.
세례를 받았다고 모두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동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변화가 마음의 예복이고,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예복을 갖추어 입자.
예복을 갖추어 입는다는 말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과 같지 않을까?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레지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전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오후 1:00 ● 사목회장단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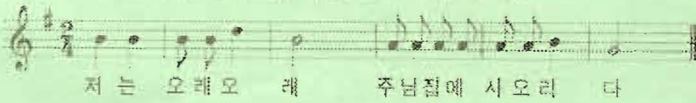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최근석 마리아, 유승례 아가다, 송봉규 요셉 & 송공광 카타리나 (생)박지영 레지나 & 김윤중 유스티나, 변혜경 올리안나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플라라,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전시웅 요한, 이철우 야고보, 이상일 요셉, 김영수 테레사, 김판봉 안나,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 박요셉 & 이마리아 & 박준호 & 잔리 (생)김부권 요한, 주용자 베로니카, 이윤희 바오로, 박경자 아녜스, 도나 에드워드, 채승희 에스더, 변혜경 올리안나, 카일리 송, 토런스 서3번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25,6-10

화답송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
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필리피서 (Philippians) 4,12-14,19-2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 음 마태오 (Matthew) 22,1-14

영성제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77	182	210
봉헌	423	225	257
성체	주품에	305	305
파견	431	193	218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예언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3,1).

제2장 성령 이해의 역사

1. 성령에 관한 교부들의 증언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 성인(†155)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와의일치 안에 계시면서도 구분되시는 분으로 이해하면서 “성
부와 성령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이제
와 항상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라고 기도한다.

로마의 클레멘스 성인(†101)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선
택된 자들의 믿음과 희망” 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는 예
언적 영감의 원천이시요, 성화의 원리이시며 사도적 열성의
원천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코린토 교회에 성령의 은
사가 많이 내려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각자는 다른 이가 받은
은사를 존중하라고 권고한다.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200)은 성령과 교회와의 일치를 강조
한다. “과연 하느님의 선물은 교회에 맡겨졌다. …… 그리스도
와 이루는 친교, 곧 불멸의 보증이며 우리 신앙의 확신이요 하
느님께로 오르는 사다리인 성령이 교회에 주어졌다. …… 교회
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계시고, 하느님의 영이 계시는 곳
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의 영인 성
령을 받아 주교직을 계승한 원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이레네오 성인보다 앞선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107)
은 성령의 활동을 주교직과 밀접하게 연관 지어서 이해한다.
그는 교회가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강조한다. “성령께서 소리 높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교
없이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성
전으로 여겨 보호하십시오. 일치를 추구하십시오. 분열들을 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닮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 로마의 히폴리토
성인(†236) 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로써 거룩한
전통의 보존을 보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교를 축성하시
며 그에게 목자와 대사제의 권한을 주신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교부들의 성령 이해는
신약 성경의 성령 이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한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규명하려는 시도도 나타
난다. 예를 들어서,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은 모든 구원 역사가
성부에게서 유래하고, 성자를 통하여 실현되며, 성령 안에서
충만히 성취된다고 이해하면서, 성자와 성령은 ‘하느님의 두
손’ 이라고 표현하였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곧 성
자와 성령)으로 만드셨다. …… 그리고 그의 육신에 당신의 모
습을 그려 넣으셔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셨다.” 이러한 시도와 함께 이단적 경향도 생겨나면
서 성령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난다. <◆계속>

기쁨과 행복으로 초대받은 신앙인

몇 년 전 갑자기 수술을 받고 며칠 동안 입원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다음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눈 부신 아침 햇살에 잠을 잤습니다. 그 햇살이 너무 아름답고 고마워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이제껏 보아온 하늘이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일상 속에 마주한 것들이 특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다만 우리가 행복하다고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언젠가 한 선배 사제가 자신의 인생 최고의 행복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해 받은 것이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처럼 경이로운 사실이 또 있을까요.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식 초대에 비유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은 당사자나 가족, 친지들에게 가장 화려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를 바로 이 결혼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성대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초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감동과 감사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당연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처음에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에 열심하다고 생각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결코 즐겁지 않았고, 오히려 엄숙하고 때로는 무섭고 힘든 명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결혼잔치에 비유하신 것은,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잔치임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착각하기 쉬운 일입니다. 또한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결코 특권층의 사람들, 즉 부자나 권력자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부터 농사꾼, 상인, 군인, 세리, 창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마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진실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착하게 사는 삶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예복을 준비하고 또 입고 있을까 묵상해 봅시다.

◆ 허 영엽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커피를 내리다가

원두를 볶거나 가는 방법에 따라,
물의 온도에 따라, 물을 붓는 속도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숙련된 바리스타라 해도
원두가 가지지 않은 맛을 추출할 수는 없겠지요.
좋은 바리스타란 없는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는 맛을 추출하는 것일 터.
내 안에 없는 것만 찾느라이트로
고달픈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목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목주기도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목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 2015년 새해달력 광고후원 주문 받습니다.
 - 신청마감 10월 12일(주일)까지 사무실
 - 새해달력은 전,후 달을 포함하여 3달을 한면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례력(독서, 복음, 성인축일, 대축일), 미국 국경일과 미국교구 대축일, 한국명절, 국경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내용 : 순교의 땅, 신앙의 숨결(펜화)
- ◆ 요셉회 가을 야유회
 - 일시 : 10월18일(토요일), 12:00~5:00pm
 - 장소 : 토런스 팍 (세필베다 + 알링턴)
 - 요셉 회원 및 부부, 가족모두 환영합니다. (푸짐한 음식및 기념품 있습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 안나회 효도관광(레이크 엘시노어 온천장)
 - 일시 : 10월27일(월요일)
 - 대상 : 55세이상(전신자, 남,녀불문), 45명 예정
 - 회비 : \$20(1인), \$30(부부 또는 가족2인)
 - 출발 : 오전 7시 30분, 오후 6시도착예정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겹옷, 타올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310)781-0021
- ◆ 2015 메디케어/ 메디칼 통합건강보험과 메디칼 플랜변경내용
 - 일시 : 10월 12일 11시미사후 12:30, 교실 또는성전
 - 주최 : 안나회

- 강사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안나회장 한춘선 루시아 ☎(310)738-4387

◆가톨릭신문 홍보 : 10월18(토), 19일(주일)
가톨릭신문은 올해로 미주지역 진출 30주년을 맞아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더욱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공동체 신자들이 가톨릭 신문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되고 작은 힘을 얻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Virtus Recertification(예전 수강자를 위한 재교육 :영어)
"Keeping the Promise Alive" Training

- 일시 : 10월 19일(주일)오후6시30분~8시
- 장소 : St.MM St.Joseph's Hall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본당 소년 레지오마리아단원(그리스도의 어머니 Pr.)모집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권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으로 7학년이상
- 주최 : 매주 금요일 오후 성당2층 교실
- 문의 : 김낙기바로 단장 ☎(310)709-3348

◆콜럼버스데이로 오늘 주일은(12일) 주일학교와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SAT 한국어 시험 준비반은 정상 수업합니다)

◆10월13일(월)은 콜럼버스 데이 연휴입니다. 사무실은 화요일 휴무입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12일(주일) * 토런스 남1,2 : 소고기국밥(\$3)
* 주일학교 : 콜럼버스데이 (수업 없음)
- 10월19일(주일) * 토런스서1,3 : 샌드위치(\$3)
* 주일학교 : 치킨 케사디아(9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고친용 김 명 김 은 김광자 김기정 김상근 김선재 김성현 김옥보 김정순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찬구 김학겸 김현숙 김형순 김효진 남명자 노혜숙 민기남 박상준 박음진 박인식 반정미 방정복 배태임 서정진 석순영 신경훈 오신재 오일순 유영궁 이경수 이귀분 이근모 이상석 이은경 이은록 이형철 진정일 정열모 주대중 주용순 차병용 최기남 최득순 최상만 최지영 최태훈 송마이클 영화가보라	고친용 김기정 김신제 김찬구 김현숙 김효진 노혜숙 민기남 박상준 박음진 박인식 방정복 석순영 신경훈 유영궁 이경수 이귀분 이근모 이상석 이은록 정열모 주대중 주용순 최기남 최득순 최상만 최지영 최태훈 송마이클 영화가보라
합계 : 5,555	합계 : 2,615
주일미사 헌금 : \$2,696	성물부수익금 : \$730
2차헌금 : \$840	

◆103위 앙상블 단원모집

- 자격 : 중학생 이상으로 초견연주가 가능하고
금요일 저녁 연습이 가능한 학생
- 연주 : 한학기에 2~3회
- 문의 : 진영선 크리스티나 ☎(310)781-0856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주일학교 F.I.G.S.Jr. & F.I.G.S. Lock-in

- 고등부 : 10월17일(금) 오후 7시 ~18일(토) 오전 10시
- 기본준비물 : 세면도구, 침낭, 여벌옷, 재킷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 교우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2014민주평통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참가

- 일시 : 10월18일(토) 오후 2시
- 참가자 : 안효경(8th), 이연준(8th)
- 장소 : 은혜한인교회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한국학교를 위하여 교우님께서 도내이션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영어 청년 피정 2014 Fortes in Fide Young Adult Retreat
“Sacred Silence”

- Date : Oct. 17(Fri)~19(Sun), \$100
- Ages : Single Young Adults -21 years old and up
- Location : Kamp Kuper, Escondido, CA
- Registration Deadline : Oct. 5th (Sun)
- More INFO : Helen Wie (helenwie7@gmail.com)

◆ 파티마의 성모님발현 97주년 기념행사

- 일시 : 10월 13일(월요일) 저녁 7시
- 장소 : 성 바실한인천주교회 본당
- 준비물 : 묵주, 성가책
- 미사집전 : 박대덕 스테파노 신부

◆ 성 프란치스코 성당 기금마련 2014 Fair 안내

- 일시 : 10월 31일(금) ~ 11월 2일 (주일)
- 행사 내용 : 놀이기구와 게임등
- 입장티켓 : \$20 / 명 / Day, 놀이기구 9개 포함
- 티켓은 본당사무실에 위탁판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 10/18(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539-3377 10/25(토) 오후 6시 30분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0/10(금) 오후 7:30 성당2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 2780-3258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0/18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0/18(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안나 750-0540 10/10(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10/19(일) 12시30분 공원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소화데레사 634-6923 10/17(금) 오전10시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10/11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권오상 바오로 404-1607 10/20 (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이병우 마리오 749-3151 10/11(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정훈모 바오로 213-700-6983 10/10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10/10 (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10/12(일) 오후4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0/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 < 6 > 조용삼 베드로(?~1801)

...하늘에는 두 임금이 없고, 사람에게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천주를 위하여 한 번 죽는 것뿐이며,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조용삼 베드로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조용삼 부자는 여주에 사는 임희영의 집에 기거하면서 천주교를 접한 뒤, 정약종에게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조용삼이 아직 예비 신자일 때 박해가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는 중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으니 틀림없이 순교자가 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조용삼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결심과 자기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약하고 불쌍한 제가 어떻게 감히 순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관장 앞에 끌려간 아버지는 첫 번 신문에 결심이 무너져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기세가 오른 관장이 “너도 배교하라.” 하니 조용삼은 “저는 배교할 수 없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아니, 네 아버지가 목숨을 보전하려 하는데 너는 죽기를 원한단 말이나, 그것은 효도에 어긋나는게 아니냐?”라고 하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릇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모보다 먼저, 또 부모 위에 천지만물의 대왕이자 공통된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제 부모에게 생명을 주셨고 제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대답했습니다. 성이 난 관장은 혹독한 고문과 신문을 거듭했고 조용삼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자 관장은 조용삼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매질을 가하며, 배교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겁박하였습니다. 조용삼은 굴복하여 소리쳤습니다. “저로 인해 아버지가 죽는 것은 볼 수 없으니 우리 둘 다 살려 주십시오.” 관장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그들을 석방했습니다.

훗날 참수당한 이종배가 관아에서 풀려나는 조용삼을 보고, 그의 나약함을 책망하며 어서 통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용삼은 그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나서 이튿날 아침 관장 앞에 나아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조용삼은 어떠한 형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유박해가 일어나 곳곳에서 신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했고, 그 무렵 옥중에서 세례를 받은 조용삼은 착한 행동과 아름다운 말로 여러 신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약해진 그의 몸은 더 이상 형벌을 감당할 수 없어, 마침내 1801년 3월27일 옥사했습니다. 마지막 형벌 때에 그는 박해자들을 향해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늘에는 두 임금이 없고, 사람에게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천주를 위하여 한 번 죽는 것뿐이며,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리더의 자격

훌륭한 리더를 재조명한 영화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 각광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세운 기록을 '명량'이 갱신했다고 하지요. 진정한 리더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의 염원이 문화 현상으로 표출된 듯합니다. 영화에서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던 송우석 변호사의 변론과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큰 울림으로 메아리칩니다. 시대는 흐르고 문화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국가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자격 요건입니다. 리더가 지녀야 할 필수적인 덕목은 공동선과 국민의 안녕을 첫 자리에 놓는 마음입니다. 사심없는 양심이야말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결실이 아닐까요?

백성의 간청

기원전 930년경, 솔로몬 임금이 세상을 뜨자 그의 아들 르하브암이 왕좌에 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 임금 앞에 나아가 자비를 청합니다. 억압 속에 비참하게 살다가 새 시대를 맞았다 싶어 희망을 가지고 용기있게 간청한 것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섬기겠습니다.”(1열왕 12,4) 르하브암은 백성의 요청에 응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한 부류는 솔로몬 임금을 받들던 원로들이고 다른 부류는 임금 자신의 동료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원로들은 “임금이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긴다면 백성은 임금에게 언제나 충성할 것”이라며 지혜롭게 권고합니다.(1열왕 12,7 참조) 반면에 젊은이들은 정반대의 권고를 하는데, 욕심에 눈먼 르하브암은 동료들의 의견에 따라 백성을 더욱더 짓누르고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왕국은 불행으로 치달습니다.

왕국의 분열

새 임금이 등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지고 절망감만 깊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르하브암 임금에게 등을 돌리고 에로보암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하나였던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진 것이지요. 백성을 내친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분열된 두 왕국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이 분산되어 슬픈 운명을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패하고 남 유다는 바빌론에게 폐망하여 유배의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섬김의 리더십

역사는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입니다. 과거 삶의 여정을 되돌아 보거나 해도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정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선택은 녹록지 않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어야 합니다.”(마태20,26-27 참조) 섬기는 리더십이 바로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 땅 위에서 드리는 기도

우주의 임금이신 주님, 당신은 ‘사람을 섬기는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통치력임을 삶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통치논리와는 다른 당신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 민남현수녀 | 성바오로팔수도회